성적평가제도 개선 '협의체' 제자리

서울캠 총학, 현행 제도에 단과대학 가이드라인 추가 제시

국제캠 총학, 인플레 이미지 '우려' 신중한 개편 필요하다는 입장

성적평가제도 논의 경과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협의체)가 4차 회의까지 마친 지금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학본부는 현행 학사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학생 설문 조사에 따라 현행제도 유지와 단과대학별 성적 가이드라인 제시안을 내놓았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성적인플레이션 이미지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4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광세홀에서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캠 총학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회장, 교무처 박광헌(원자력공학) 처장,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과 한상 계장,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과 민혁(경제학 2014) 집행위원장, 백상현(화학공학) 교수와 윤지웅(행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학본부에서 교강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강좌별 평균학점 B0 요청'으로 논란이 발생한 뒤, 서울캠 총학이 제안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공정하고 엄정한 성적평가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대외적 학교 위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응' 한다는 운영목적을 내걸었다. 이후 2월 5일에 열린 1차부터 3차 회의까지 우리학교 성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 성적평가 기준, 성적분포도의 대학평가 반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강좌별 성적 부여의 기준', '절대평가 강좌 타당성', '재수강 시 취득 가능 성적' 등을 논의했다. 교무처 박광헌 처장은 타 대학보다 심한 우리학교의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언급했다. 박 처장은 "2014년 공시 기준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A와 B 학점을 합친 비율이 타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느슨한 '재수강제도'를 꼽았다.

실제 우리학교의 재수강관련 제도는 학점 B- 이하만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일 안이다. 성균관대는 C+ 이하 신청 가능에 취득가능 학점은 B+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는 재수강 신청을 3회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캠 총학 이서영 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어떤 기준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에 앞서 졸업생들의 실제 재수강 이용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황 파악 후에 취득학점 혹은 수강학점에 제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적평가제도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은 '현행 성적평가제도는 유지하되, 단과대학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안은 서울캠 총학이 서울캠 재학생 7,08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설문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과 식품영양학과를 제외한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은 현 성적평가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직과목의 경우는 절대평가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학계열 학생들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공동실험을 비롯한 실험수업의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소수의 이론수업을 제외한 전 과목 절대평가제를, 의·약학계열 학생들은 유급제도 관련 논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국제캠 총학 이 부회장은 "국제캠 학과의 학점 분포도를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곳이 없다. 학점을 잘 준다는 우리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며 성적 평가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다만 성적평가 기준에 관해서는 "현행 기준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타 대학보다 제약이 적어 교수의 성적평가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이유에서다.

백상현 교수는 학점 인플레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졸업 성적에 학과 전체 평점, 단과대 전체 평점을 명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이런 식으로 성적을 낸다면, 학점 인플레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각각의 안건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제5차 회의는 오는 7월 13일로 예정돼있다.

지난 4일 '성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4차 회의가 국제캠에서 열렸다

가장 큰 이슈, '문화복지시설'

대학주보 1학기 온라인 기사 분석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우리신문은 이번 학기부터 종이 신문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한 학기동안 작성된 대학주보 온라인 뉴스 중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기사들을 살펴 본다.

2015학년도 1학기, 구성원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주제는 '문화복지시설(가칭)'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신문이 지난 1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6개월 간 작성한 기사 총 334개의 대학주보 온라인 조회수를 분석한 결과다.

온라인 조회수 상위 20개의 기사 중 '문화복지시설' 관련 기사는 총 4건이었다. '정문 앞 노란색 건물 그 정체가 뭔가요?(조회수 3106회)'와 '정문 앞 노란색 건물, 캠퍼스에 재미 더해줄 것(조회수 1922회)' 등 문화복지시설의 건물색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 개관 후 갑론을박'이라는 기사와 같이 문화복지시설에 상업시설이 상당수 입점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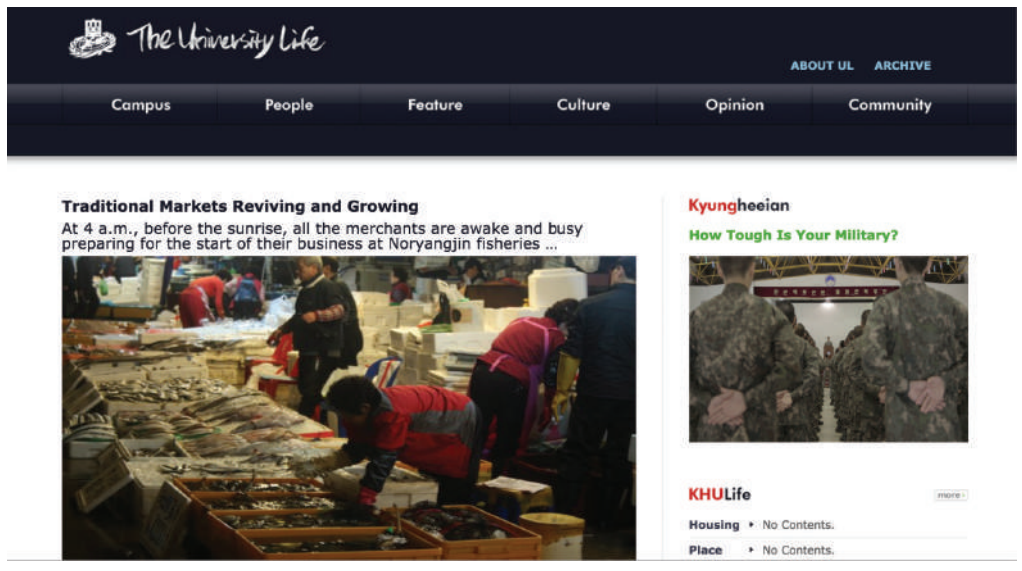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다. '회기동에서 오래된 식당 7곳은 어디?(조회수 5970회)', '마을, 청춘에 아로새긴 낙서의 흔적들(조회수 3294회)' 등 우리신문이 학교 주변의 지역소식에 대해 다룬 내용이 각각 조회수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총여학생회(총여) 존폐논란과 관련된 기사다.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두고 대자보 갑론을박(조회수 2839회)'는 댓글이 23개 붙었다. 6개의 대자보가 연이어 붙을 만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신문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것이다. 이후 총여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차례로 게재했다.

그밖에도 온라인 기사 '2015학번부터 졸업 후에도 재수강·학점포기 기록 남는다(조회수 3079회)', 온라인 기사 '서울캠 주변 성범죄 고위험지역 5곳, 국제캠 상대적으로 저위험(조회수 1849회)', 온라인 기사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즐기자!(조회수 1525회)', 1585호에 실렸던 '서울-국제 간 자연계열 동일 과목 인정 안돼 다전공희망 학생, 모순된 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조회수 1317회) 등의 기사가 구성원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기사 조회수 상위 10개 게시물〉

순위	기사 제목	조회수
1	회기동에서 오래된 식당 7곳은 어디?	5970
2	"누구세요?" 한눈에 보는 신입생	5415
3	"마을, 청춘에 아로새긴 낙서의 흔적들"	3294
4	정문 앞 노란색 건물 그 정체가 뭔가요?	3106
5	2015학번부터 졸업 후에도 재수강·학점포기 기록 남는다	3079
6	'경기도의 딸' 키썸과 함께, 즐거운 개강!	2866
7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두고 대자보 갑론을박	2839
8	서울캠 보행자도로 변경, 공사차량 진입로 확보 목적	2366
9	O&P 학과평가 최우수,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2188
10	" '정문 앞 노란색 건물' 캠퍼스에 재미 더해줄 것"	1922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으로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들을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들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개의 해외 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 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

경 희 대 학 교 대 학 생 활 사